

延禧 - 1925. 06. 10.

認識의 成立

李康烈

認識에 關한 研究는 哲學의 中心 問題이다. 아니 모든 學의 根本 問題이다. 그것은 다른 모든 學은 事物에 關한 組織的 知識을 意味하는 것이나 認識의 研究는 知識 그것을 研究 對象으로 하기 때문이다. 認識의 研究가 이리 케 重要한만큼 또한 困難한 것이다. 이리 케 重要하고 또한 困難한 問題는 나로 서 敢히 解決을 바라지 못하는 바이나 거기에 不拘하고 이 問題를 提起한 것은 거기에 가장 만흔 興味를 가진 까닭이다. 그러나 紙面關係로 細密한 點 까지 쓰지 못하는 것은 遺憾이다. 엇더턴 나는 이 글을 三部로 난호아서 아 래와 갖치 論究하라고 한다. 먼저 認識의 問題를 提起하고 그 다음에 이 問題에 關한 學說을 概述하고 마즈막으로 認識의 成立을 말하라고 한다. 勿論 이 글의 主要部分은 마즈막 部分인 認識의 成立이고 첫재와 둘재 部分은 거 기까지가는 準備로 의 論究이다. 곧 緒論의 職能을 가졌을 썬이다.

一, 認識의 問題

認識研究에 잇서서는 認識論과 論理學을 根本적으로 區別할 必要는 업겠 다. 둘이 다 知識作用 곳 思惟作用을 研究한다는 限에 잇서서는 말이다. 一 般으로 이 둘의 區別은 前者는 思惟作用의 內容을 後者는 그 形式을 研究한 다는點으로 한다. 知識의 內容 또는 思惟의 本質을 研究하는 認識論은 心理 學과 接近한다. 그러치만은 認識의 研究가 知識 成立의 根據를 闡明하라고 하는 限에 잇서서 知識의 作用法 곳 思惟作用의 方法의 研究(論理學)를 쟈나 서는 不可能할 것이다. 그럼으로 나는 認識 研究에 잇서서는 認識論과 論理 學을 根本적으로는 區別할 必要가 업다고 한다.

이제 認識의 問題를 提起하자. 우리는 認識(知識)에 關해서 세 가지 問題 를 가지고 있다. 곧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엇더케 아느냐 하는 것이다. 누구 던지 무를 수 잇는 이쉬운 質問 속에 누구나 다 갖치 對答할 수 업는 어려 운 問題가 셋이 包含되였다.

第一의 問題 「무엇을」이라는 것은 認識 研究의 焦點 問題로서 認識의 本質 또는 意義의 問題이다. 이것이 곧 認識의 對象 問題인 同時에 認識과 對象과의 問題이다. 곧 「아는 것」과 「알려진 것」과의 關係를 攻究할 問題이다. 이것을 리켈트의 말로 하면 認識의 問題는 認識의 對象을 求하는 것과 對象의 認識을 定하는 것과 이다.

第二의 問題 「얼마나」는 認識의 範圍 곧 限界問題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안다고 하니 그 아는 것이 어느 程度까지인가 하는 問題이다. 곧 吾人의 認識能力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그 認識의 可能 限界를 밝히려는 問題이다. 칸트의 말을 빌어하자면 知識의 權能 問題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問題의 研究로 말미암아 認識의 限界를 定함과 同時에 認識의 種類를 判別할 수 있는 것이다.

第三의 問題 「엇더케」는 곧 엇더케 우리가 事物를 알게 되는가 하는 것으로 이 問題에서 우리는 認識作用을 分析해서 그 起源을 說明하는 것이다.

以上 三問題는 各々 그 獨特한 研究科目이 있는 것이지만은 그 根本에 있어서는 다 第一의 問題에 도라 갈 것이다. 곧 무엇을 얼마나 엇더케 아느냐-세가지 問題를 包含한-하는 中에 무엇을 아느냐고 하는 問題가 中心 問題일 것은 容易히 認定될 것이다. 認識의 意義 本質을 求하는 것은 認識論의 中心으로 認識과 對象과의 關係 問題이다. 이 認識의 根本 性質의 研究는 처음부터 아모 것도 假定하지 안는다. 그러나 꼭 한 가지만은 假定안이 할 수 업는 것이있다. 그것은 곧 「나는 안다는 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곧 내게는 안다는 事實이 있다. 이 事實만은 안이 假定할 수 업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思惟 곧 認識한다」는 것만은 假定할 수 받게 업다. 우리가 만일 이것을 가지지 안었다고 하면 研究의 材料가 업슬 쏴더러 研究라는 動作이 세상에 업슬 것이다. 그러므로 이 根據 우에 서서 우리는 認識 그것의 根據를 探究해서 認識의 對象을 定할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認識의 普遍妥當성을 確定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認識의 問題는 우에 쓴리켈트의 말과 갓치 認識의 對象을 求하는 것과 同時에 또 對象의 認識을 定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그것이 認識의 形式 問題가 되는 것이다. 곧 「안다」는 일은 認識의 內容을 내가 處理했다는 일이다. 認識이라는 것은 主觀의 作用으로서 認識의 內容을 處理하는 形式인 것이다. 이것은 認識은 곧 判斷이다 하는 것으로 明確한 일이다. 이것은 마즈막 認識의 成立을 攻究하면 제절로 알 것이다. 여기서는 爲先 認識의 問題는 認識의 形式 問題이다는 것만 말해둔다.

以上에 말한 것을 簡單히 概括하면 이것이다. 認識의 問題는 「우리가 무엇

을 얼마나 엿더케 아느냐」하는 것으로 認識의 對象, 限界, 起源이 세 問題이다. 그리고 이 세 問題의 終局은 認識의 對象 問題이라는 것을 말했다. 그 다음 거기 追加해서 認識 研究는 「나는 思惟한다」는 事實 하나만 先定하고 그 우에서 認識의 普遍妥當性을 確定한다는 것을 말했다. 그리고 認識과 對象問題는 對象의 認識問題에까지 展開되는 것으로 여기 니르러서는 認識問題는 認識의 形式問題로 展開된다는 것을 말했다. 이것이 以上の 摘要이다.

二, 認識 問題에 關한 學說의 概觀

나는 여기서 以上에 論述한 問題의 順序를 맞구어 排列해 가지고 말하겠다. 先 認識의 起源, 限界, 對象 이런 順序로 거기 關한 學說을 略述하겠다. 이러케 하는 것은 먼저 認識의 起源, 限界를 說明해서 그것이 終局으로는 對象問題에까지 展開되는 것을 보이는데 便利하다는 한 方便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또 이러케 하는 것이 마즈막 部分인 「認識의 成立」을 말하는데 連結이 잘 되는 便宜가 잇는 것을 본 까닭이다.

(1) 認識의 起源에 關해서는 二大 反對說이 있다. 理性論과 經驗論이 그것으로 이 두 說은 批判論으로 말대암아 統一이 되었다. 「엇더케 아느냐」하는 問題에 對答해서 理性論은 理性의 힘으로 한다고 한다. 그 學說의 主張하는 根據를 보건대 모든 確實한 知識은 理性으로 말대암아된다. 經驗이란 것은 理性으로 말대암아 된 知識을 爲해서 證明세워주는 事實에 不過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 理性論은 知識의 種類를 아래와 갖치 說明하면서 理性으로 認識 起源을 解釋한다. (a)純粹히 理性의 힘으로만 되는 知識-數學과 갖흔 것-도 잇고, (b)經驗的 事實을 理性이 綜合形成하는데 依해서 되는 知識-生物學上反復說과 갖흔 것-도 잇는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갖치 理性論은 그 所謂理性 곧 思惟能力으로써 認識成立의 根本이라고 한다. 그러나 反對說인 經驗論은 理性 그것의 起源을 풀어가지고 드되여 理性이란 것은 外界印象으로 成立된 것이라고 紗라서 被動的인 것이라고 한다. 經驗업시는 知識이 잇슬 수 업다는 主張이 이 學說의 標語이다. 그래 一切 知識은 經驗으로 말대암아 成立된다는 이 學說은 思惟作用보다도 經驗事實을 重히 녀이는 나마에 生理的 心理學의 研究態度에 니르러서 感覺을 基礎로 해가지고 知識成立을 說明한다. 그래 理性論이 必然的 知識이라고 認定하는 因果律과 갖흔 것도 다만 現象의 繼續에 不過한 것으로 本來理性이 成立식힌 것이 안이고 現象에 對한 吾人의 習慣的 곧 經驗的 知識이라고 한다. 極端으로는 數學的 知識도 經驗的이요, 蓋然的이라고 한다. 이와 갖치 經驗論은 認識의 材料를 供給하는데 不過하는 經驗(感覺)을 偏重해서 드되여 認識研究을 버서나서 心理研究에 드러가고 말었다. 그래 認識分析의 極端에 나아가 感覺만에 파뭇치기

새문에 知識의 確實性까지 否定하게 되었다. 여기서 理性論에 도라감과 同時에 그 理性論의 偏見(材料供給의 職能을 가진 經驗을 無視하는)을 改正하여 認識作用 곳 思惟作用과 經驗事實 곳 認識材料와를 包括해 가지고 한 層 높은 見地에서 認識을 研究하는 學說 곳 批判論이 생겼다. 批判論은 이와 갖치 理性論의 偏見을 긋침과 同時에 經驗의 概念도 새롭게 만드렸다. 곳 우에서 經驗論이 理性의 起源을 疑心한 것과 갖치 우리는 經驗의 可能을 說明해달라고 要求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經驗의 材料에 對한 主觀的 要素를 認定할 수 업다. 이것 이곳 思惟的 要素로 整理統一의 作用을 하는 形式이다. 이리케 認識의 兩要素-材料와 形式-을 明白하게 해가지고 認識그것의 說明을 하는 批判論을 大成한 것은 칸트의 功績이다. 그래 理性이란 것은 經驗을 構成하고 統一하는 認識作用의 形式的 要素이고 經驗(一般으로 말하는 經驗)이란 것은 統一된 原料인 材料的 要素이다. 나는 여기서 이것보다 더 細密하게 論述할 必要를 感치 안는다. 다만 認識 起源 問題에 關해서는 經驗的 材料와 思惟的(理性的) 形式과가 함께 認識成立上不可缺할 것임을 보인 것(批判論에서 밝은 善物)으로 녀々하다고 한다. 그것은 겨의서는 다만 概觀만 하자고 했스니까-. 한마디 加해둘 것은 經驗統一原理로서의 理性이라고 하는 概念을 엇은 吾人은 이에 從來로 쓰던 經驗, 理性, 이런 概念에 새로운 意味를 가지게 되었고 따라서 認識研究가 形式問題로 展開되는 것을 認定하기 쉬우게 된 것을 알 것이란 말이다.

(2) 認識의 限界問題 「얼마나 아느냐」는 「무엇을 아느냐」하는 認識의 對象 問題를 解決하면 곳 거긋서부터 演繹해 낼 수 잇는 問題이다. 다시 말하면 곳 이 問題는 認識의 可能界 即 評價의 問題이기 새문에 認識의 本質을 闡明하면 의례히 풀닐 것으로 認識의 中心問題에 依存한 것이란 말이다. 그러나 問題의 考察은 認識의 對象問題의 後註가 됨과 同時에 知識의 種類를 判定하는 일이 되는 것으로 全然 無用之事라고는 못할 것이다. 아무턴지 여기서 이 問題에 關해서 엇던 學說이 잇는가를 略述하기로 하자. 前述한대로 「얼마나 아느냐」한 問題는 「안다」고 하는 認識能力或作用이 「알녀진 것」 即 對象에 對해서 어느 範圍까지 妥當하냐 하는 것인데 獨斷論은 沒批判的으로 知認의 限界를 定限하지 안는다. 곳 모든 것을 何知界內에 두는 것으로 이 獨斷論이 經驗論에 잇서서는 知覺하는 것은 모도 知識이라고 곳 世界는 吾人이 知覺하는 그것이라고 하며 理性論에 잇서서는 世界는 吾人이 思惟하는 그대로라고 主張하는 것이다. 그런대 이리케 可知界를 定限하지 안는 獨斷論을 反對하는 懷疑論은 不可知界에다가 限界를 두지 안는다. 다시 말하면 곳 우리는 모든 것을 모르겟다는 말이다. 그래 極端인 懷疑論은 吾人은 엇던 主

張이던지 主張할 수가 없다고 主張하는 矛盾에까지 싸지고 만다. 아모던지 이 說은 知識의 必然性或은 普遍性을 否定하고 마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두 學說 곧 實證論과 批判論은 함께 可知界와 不可知界 두 곳에 다 限界를 定한다. 그러나 이 兩說은 可知界 곧 知識可能範圍에 對해서는 相異한 主張을 가지고 있다. 實證論은 「얼마나」를 實證할 수 있는 經驗的 事實에 關한 科學的 知識까지만 限한 것으로 哲學的 知識의 可能性을 어느 程度까지는 疑心하는 것이다. 그러나 批判論은 이 實證論보다 그 「얼마나」를 擴張해서 科學的 知識 即 法則뿐만 아니라 그 假定에 關한 知識도 可能하다고해서 概念的 知識의 權能을 認定하며 統制的 原理에 依해서 哲學的 知識의 獨立權을 主張하는 것이다.

(3) 認識의 對象問題 「무엇을 아느냐」는 곧 「아는 것」과 「알너지는 것」과의 關係를 攻究할 問題로 認識의 材料와 形式의 關係 或은 客觀과 主觀의 關係 或은 認識하는 意識과 그 對象이 되는 實在와의 關係를 問題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認識(意識或思惟)의 作用과 內容과의 根本研究로서 이것이야말로 認識研究의 中心問題인 것은 前述한 바와 같다. 이것을 認識 上述語로 말하자면 認識의 客觀的 妥當性이라는 根本命題를 論究한다는 것이다. 그래 이 認識과 實在와의 關係를 分析攻究하는데 當해서 吾人의 認識은 實在를 描寫하는 것으로 認識主觀에서 獨立한 實在가 있다고 主張하는 學說이 잇스니 이것이 實在論이다. 이것을 否定해 가지고 吾人의 認識하는 世界는 畢竟인 즉 意識의 內容인 觀念에 不過하다고 하는 學說이 잇스니 이곳 觀念論이다. 素朴한 實在論은 이제 말한 것처럼 認識主觀에서 獨立한 實在를 認定하야 觀念은 實在의 描寫이기 때문에 觀念에 나타나는 性質或은 變化는 總히 外界實在의 性質或은 變化이라고 한다. 그러치만은 이 갖흔 極端의 主張은 感覺의 性質 及 吾人이 가진 知識의 性質에 恢하야 容易히 打破되는 것이다. 여기서 實在界는 畢竟吾人의 觀念界에 不外한 것이라고 하는 觀念論이 머리를 든다. 이것에도 極端인 것은 認識의 對象은 個人的 主觀的 過程에 不外하다고 하야 知覺 그것이 곧 實在이라고까지 主張하나 吾人은 此說도 亦是 認識研究上取하기에 足한 것이 안임을 안다. 本來 正當한 觀念論은 認識된 그 實在는 實在 其 自身の 眞相이 안이고 觀念的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에 實在論과 觀念論과를 折衷해 가지고 一層 높흔 見解를 가지는 說은 實在를 全然 否定하는 것도 아니고 또 觀念을 唯一의 實在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認識되는 것은 認識의 內容 即 意識內容 即 觀念이라고 主張하는 것으로 이를 現象論或은 先驗的 觀念論이라고 한다.

三, 認識의 成立

이제 우리는 本論으로 드리갈 새가 되었다. 이 貴重하고도 困難한 問題를 以下 三階段에 난화論述해 보겠다. 元來 스사로 完全한 解決을 期約하지도 못하는 것이나 知慾에 汲汲한 者의 스사로 더듬어 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1) 認識의 材料.

(2) 認識의 要素.

(3) 認識의 作用……(a)判斷, (π)統一態, (c)推理, (d)發表.

(1) 認識의 材料 칸트가 「一切의 認識은 經驗으로써 始作되나 經驗으로 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은 確實히 認識問題解決의 基礎的 命題이다. 「一切의 認識은 經驗으로써 始作된다」는 것은 이곳 認識의 材料的 方面을 말한 것으로 吾人은 먼저 認識의 材料를 定할 必要가 있다. 認識의 材料라고 하는 限에 있어서 쏘는 나(認識者)의 經驗이라고 하는 限에 在하여 그 材料라는 것은 意識의 것이 될 수 없다. 왜 그런구하면 意識外에 獨立한 材料라는 것은 말은 할 수 있어서도 생각할 수 없을만큼 認識에는 無關係한 것이기 때문이다. 經驗이란 나의 意識에 依하여 統一形成된 것이다. 그래서 認識의 材料는 意識의 事實이라고 定할 수 맞게 업다. 或은 이것을 觀念이라고 해도 조타. 그러면 意識의 事實이란 무어냐. 첫째로 그것은 感覺에 意義를 附加하는 일이다. 意識의 事實은 單히 感覺의 集畧뿐이 아니고 거기에 意義를 附加하여 비로소 認識의 材料가 되는 것이다. 다음은 엇던 經驗에 當해서 意識의 或狀態 卽 意識內에 내려난 意識內容의 存在 全部가 意識의 一事實인데 이 새 必要한 것은 이 意識의 狀態를 統合整理하는 者(我)-이는 疑問狀態를 經由해서 생기는 것-가 잇는 것으로 이것이 잇서야 그 意識의 狀態는 認識의 材料가 된다. 그리고 意識의 事實이란 것은 意識의 統合을 經해서 생기는 寫象或觀念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觀念이 抽象的 性質을 가지게 될 때는 그것은 概念이 된다. 이 概念으로서의 觀念은 觀念互相間의 或要素를 由하여 包攝하며 包攝되며 해서 한 統一態를 일우는 것이다. 이러케 觀念은 主觀的 (寫象)인 同時에 그 主觀性을 超越包括하여 거기에 普遍性을 持來함으로 全一한 組織體가 된다. 이와 갖치 되어서 觀念은 具體的인 一組織體이다. 그럼으로 意識 그것도 쏘한 一大觀念인 것이다. 이 組織體는 融通性을 有하면서도 全體性을 持한 것으로 意識이란 것은 ■■時에 多이다. 그래서 거기에는 不可入性이란 것은 不當한 것이요, 觀念은 貫通性을 가지기 때문에 쏘한 包攝性을 가진 것이다.

(2) 認識의 要素 上述한 認識材料는 말하자면 認識을 分析해서 엇는 것으로 이것은 곳 認識要素의 하나이다. 이곳 認識의 材料的 要素로 이를 「客觀」이라고 해도 조타. 다른 要素는 무어냐. 이도 亦認識을 分析함으로 容易히

認知할 것이다. 그것은 認識에는 그 材料에 意義를 附加하여 그것을 統一整理하는 作用이 있는 일로서 이 作用이야말로 材料를 統一하는 形式이다. 여기서 吾人は 認識의 形式的 要素를 엮었다. 이를 「主觀」이라고 해도 조다. 이것치 認識에는 統一되는 材料와 統一하는 形式과의 두 要素가 있다. 前述한 칸트의 「一切知識은 經驗으로부터 始作된다」한 그 經驗은 卽 認識의 材料를 말하는 것이요, 「그러나 다 經驗에서 오는 것은 안이다」한 것은 卽 그 經驗을 統一하는 다른 認識의 形式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吾人は 이 두 要素를 客觀, 主觀이란 말로도 表示했는데 이 말을 使用 해가지고 兩要素의 對立을 考察하는 것도 無用의 일은 안이다. 여기서 나는 릭켈트의 說을 引用한다. 主客의 第一對立은 「吾人の 精神까지도 包括한 身體를 主觀으로 하고 이것을 圍繞한 空間的 世界를 客觀으로 하는 것」인데 이는 極히 素朴的 見解로 認識研究에 取할만한 것이 못된다. 그 다음은 「自己의 意識과 그 內容과 主觀이가 이것 以外의 모든 것을 客觀이라」하는 것인데 이는 心理學的 對立이다. 第三에는 「自己意識內容이 客觀이고 이 內容을 意識하는 것이 主觀이라」고 하는 對立인데 이는 結局 우리가 認識을 分析해 있는 材料와 形式과의 符合하는 것으로 그 客觀도 또한 主觀과 同樣으로 意識의 事實이다. 그래 客觀은 主觀의 힘에 依하여 形成되는 것으로 結局主觀內에 드러가는 것이다. 이곳 材料를 整理統一하는 認識의 作用 卽 統一的 形式의 힘이다. 이제 具體的 例를 들어 說明하자. 지금 「나는 京城의 金君을 생각하고 있다」하면 「나」는 「主觀」이고 「京城의 金君」은 「客觀」이다. 그런데 이제 다시 「내가 京城의 金君을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나는 안다」하는 째에는 앓가 「나」와 「京城의 金君」이 共히 「客觀」이 되고 이것을 「意識하는 내」가 「主觀」이 된다. 이와 갖치되어 이 「나」던지 「京城金君」이던지 共히 意識內에 事實이여서 이것이 統一的 形式과 符合된 材料이다. 이와 갖치 認識인 限에서는 거기에선 반드시 材料的 要素와 形式的 要素가 있다.

(3) 認識의 作用 上述한 論究로써 認識의 意義가 벌써 定해진 것 갖치 보인다. 그래 나는 지금 이 「認識의 作用」이란 節로 「認識의 成立」을 結論하려고 한다. 認識이란 것은 곳 意識의 事實을 材料로 하여 이것을 意識적으로 統一하는데 依하여 생기는 것으로 그것(곳 認識)도 말하자면 한 意識의 事實이다. 그리고 여기서 意識的 統一이라고 말하는 것은 或은 感覺에 意味를 附加하는 일, 或은 意識內容을 包括해서 觀念又는 概念을 만드는 일이다. 이러케 認識을 解釋하면 그것은 畢竟인 즉 思惟作用이다. 아모던지 이 意識의 統一性은 그 自身の 貫通性 또는 包括性에 依하는 것으로 그것은 必然的 先驗的인 것이기 때문에 客觀的 確實性을 가니자. 따라서 意識의 統合은 自動的

이지 受動的인 안이다. 이 갖치 意識의 統一이 客觀的 確實性을 가지는 所以는, 그 統一이 必然的인 主觀的 形式性에 依據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여기서 認識의 形式性을 認知안할 수 없다. 우리는 形式업는 材料를 생각할 수 없다. 建築의 材料가 되는 松柏이 山中에 靑々하게 서있어서는 아모 것도 안이다. 반드시 建築設計師의 圖形에 依하여 세움을 맞은 後에야 비로소 建築이 된다. 認識의 認識인 本義는 實로 形式性에 있다. 이것은 내가 認識의 問題를 提起할 새에 「안다」는 것은 認識內容을 내가 處理했다는 일이란 것으로 主觀的 形式이라고 하는 것은 前述했다. 그래 認識의 問題는 認識의 形式問題이다. 桑木氏의 「論理學은 그 知識이 形式的인 것 뿐 아니라 實로 知識의 形式을 問題로 하는 것이다」라고 한 말은 亦是이 쪽 方面을 意味하는 것이다.

(a) 判斷-그래 이 形式的인 認識의 作用의 根原은 무어나. 判斷이다. 意識의 統合은 언제던지 判斷의 形式에 依하는 것으로 判斷 即 認識이다. 判斷은 무어나. 意識(認識)內容을 聯結統合하는 것으로 主觀的 概念連結의 形式이다. 그런데 여기서 注意할 것은 概念成立의 根源은 亦是判斷인 것이다. 判斷의 成立은 이곳 認識의 成立이다. 그러면 判斷의 本質이 무어나. 여기서 우리는 「客觀」(意識의 事實)에 對하는 「主觀」의 肯定又是 否定作用이라고 ■■■■. 肯定 否定의 作用은 判斷을 成立시키는 것으로 主觀的 認識의 成立이다. 肯定 또는 否定이란 것은 主觀的 同意又是 排斥作用이다. 이로 보더라도 認識의 統合形式은 自動的인 것이다. 이와 갖치 肯否는 同意又是 拒絕를 意味하는 것으로 거기에는 그 初階段으로서 「疑問」의 形式이있다. 그러나 「疑問」은 다만 判斷이 向할 方向을 깨우쳐 주는 것으로 거기는 아직도 肯否가 없다. 主觀 「疑問」은 眞僞가 엮는 狀態로 그것은 認識이 안이다. 그건 엮지되었든지 肯否의 作用은 客觀 即 認識의 材料를 統合하는 認識의 形式이다. 認識인 限에는 이 判斷의 形式에 基礎하는 것이다.

(b) 統一態-判斷의 形式에 依하여 統一된 意識의 事實이란 것은 全一한 組織體로 이곳 觀念이라고 하는 統一態이다. 이는 主觀 觀念(材料인)互相間의 或 要素를 聯結하여서 組織體를 形成시키는 것으로 主觀 統一態를 形成하는 것이다. 이것은 判斷의 形式動作으로 이를 거듭할수록 一層 더 明白한 觀念系統이 産出된다. 이를 概念이라고 한다. 이와 갖치 産出된 統一態는 그것도 亦是 必然的 包括性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必然的 統一의 動作을 한다. 이 系統을 만드는 일이 主觀 概念的 認識의 成立이다.

(c) 推理-이런 系統을 세우는 判斷의 形式은 單純한 것이 안이고 極히 複雜한 것으로 거기는 比較, 取捨, 整理, 統一의 動作이 있다. 이런 比較統一은

元來는 判斷의 形式이지만은 이를 特히 推理의 形式이라고 한다. 곳 엇더한 判斷과 다른 한 判斷을 比較統一해서 새로운 判斷을 나리는 것이 推理의 形式이란 말이다. 이 推理의 形式動作이야말로 普遍的 必然的인 것이다. 그래 거기는 客觀的 確實性이 있다. 이와 갓흔 推理形式에 잇서서 概念은 自由로운 活動을 한다고 할 수 잇는데 그러타고 그 自由는 決코 形式을 깨트리는데 것은 안이다. 그는 認識作用은 形式을 썬나서는 成立되지 못하는 것이기 썬문이다. 推理法의 種類라던지 格이라던지 式이라던지는 論理學에서 仔細히 工夫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그것을 다 論述할 必要도 업고 紙面도 업다.

(d) 發展-認識研究에 在하여 吾人은 爲先 그 材料를 意識의 事實이라고 定했고 또 認識을 分析하여 材料的 要素와 形式的 要素를 求했다. 곳 客觀과 主觀을 求했다. 그리고 形式은 그 材料에 意味 附加의 動作, 整理統一의 動作을 해서 組織體 곳 概念或은 概念을 作成한다는 것을 論述했다. 그리고 이 統一의 形式은 「主觀」的 必然的인 것이기 썬문에 客觀的 確實性을 가졌다고 述했다. 이 認識의 形式的 作用은 判斷作用 即 肯定否定的 作用인 自動的 形式活動으로써 이것에 依하여 認識의 材料는 統一態가 되어 確實한 認識을 取得하는 事를 보았다. 또한 이 統一態는 亦是 必然的 統一性을 가져서 比較 統一의 複雜한 判斷形式 即 推理形式을 取하여 統一한 것이 統一된다고 하는 認識作用(勿論 形式的)을 經해서 드되여 認識의 材料란 것이 나의 產出한 것이란 것을 考察했다. 여기서 나는 認識을 「發展」이라고 하는 概念으로 그 本質을 定한다. 그리고 이 「發展」은 我的 能動的 必然的 形式的 活動이다. 形式인 까닭에 「發展」은 可能하고 形式的 發展인 까닭에 自由로운 活動을 한다. 그리고 이 自由로운 發展은 形式的인 限에서 絶對的이다. 그런대 이 發展은 意識의 自我發展에 不外하는 것이다. 여기에 認識의 本義가 있다. 릭 켈트는 「認識의 問題는 統識의 對象을 求하는 것과 對象의 認識을 定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기서 나는 認識의 問題는 認識의 發展을 究하는 것과 發展의 認識을 定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 안인가 한다. 이것이 어렴프시 이 一書生의 머리에 썬오르는 무엇인데 아직도 그것을 밝혔다고는 생각되지 안는다. 發展인 나는 發展을 썬라 發展을 求할 것이다.

이러케 이 글을 썬고 나니까 또 곳쳐 썬고 심흔 點이 만히 보인다. 그러나 그는 하로 잇홀에 안될 것이다. 이글은 一九二三年 가을에 李傳士의 指導로 開始된 延專哲學 練習 講座에서 말했던 것을 이번에 그 中の 「史的 考察」이란 部分은 썬버리고 다시 썬 것이다. 이는 習作에 不過한 것이다. 더구나 判斷의 本質에 對해서는 생각이 좀 變한 것도 잇지만은 그 前대로 그냥 썬다. 엇더턴 이 글은 觀念論的 論理主義의 見地에서 習作한 것이다. 썬라서 未熟

을 버서나지 못했다.

一九二五年 六月 十一日 下戶■에서